

소양 : ON

Stories of Living Faith

EDU : ON

근화초 찐친들 : 교회친구 학교친구

OFFICIAL : ON

현장과 믿음, 끝까지 지킨 소방관의 길

LEGAL : ON

신앙으로 걷는 정의와 성실의 길

HEALTH : ON

질병을 넘어 삶을 살피는 의사

CULTURE : ON

실과 바늘로 잇는 전통과 일상

무대 위에서 자라는 배우

결과보다 동행, 사람을 먼저 세우는 스윙

BUSINESS : 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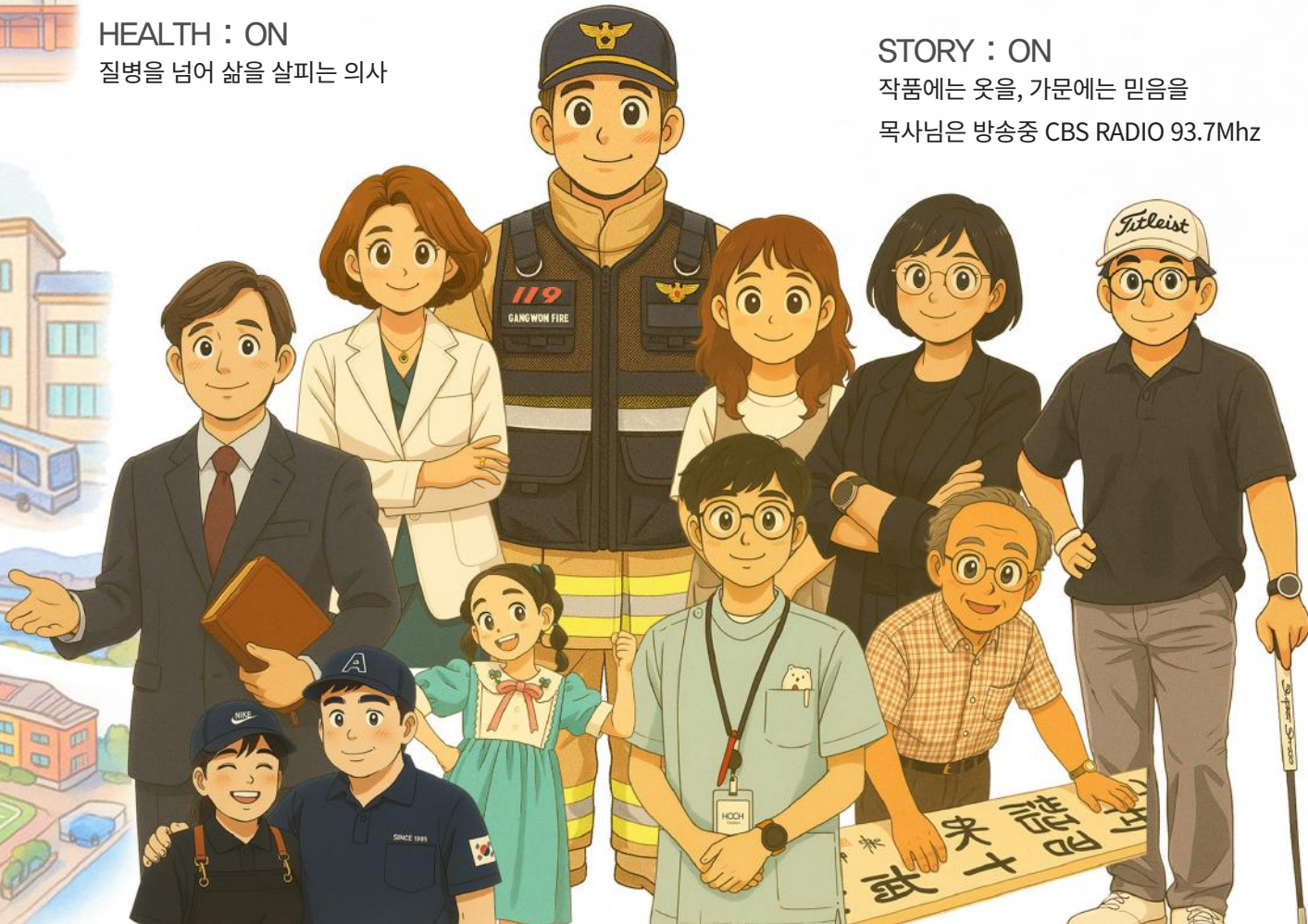
기도로 불을 지피고, 정성으로 굽는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STORY : ON

작품에는 웃을, 가문에는 믿음을

목사님은 방송중 CBS RADIO 93.7Mhz





부모가 축복하고 자녀가 축복받는 교회



CONTENTS

EDU : ON

- 02 근화초 찌친들 : 교회친구 학교친구
근화초등학교 1학년 송하울 어린이 이야기
- 03 믿음:ON,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학교기도불씨운동
- 04 소양교회 교회학교
예배의 기쁨과 신앙의 깊이가 있는 교회학교

OFFICIAL : ON

- 05 현장과 믿음, 끝까지 지켜온 소방관의 길
홍천소방서 최진호 소방관
- 06 사랑:ON,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을 돌보다
유봉여자중학교 박혜영 보건교사

LEGAL : ON

- 07 신앙으로 걷는 정의와 성실의 길
변호사민세영법률사무소 민세영 변호사

SERVICE : ON

- 08 서비스를 넘어 가족처럼
큰사랑노인복지센터 박유순 대표
- 09 사랑의 통로가 되어
춘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조은애 센터장

HEALTH : ON

- 10 질병을 넘어 삶을 살피는 의사
서울아산내과의원 김은진 원장
- 11 판단보다 공감으로
맑은정신건강의학과 신기택 원장
- 12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서울삼성산부인과 김지영 원장

CHURCH : ON

- 13 부활의 생기를 전하는 소양교회
- 22 교패 두개
- 27 장로 사형제, 장씨 사형제

CULTURE : ON

- 14 실과 바늘로 잇는 전통과 일상
지음규방공예 이미정 작가
- 15 가족을 다듬듯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리
수기래더 이미숙 작가
- 16 시간을 입히는 사람
고전진의 한복 디자이너 박진옥 작가
- 17 무대 위에서 자라는 배우
뮤지컬 배우 차유은 어린이
- 18 관객의 마음을 바꾸는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 조찬연
- 19 민요 한자락, 복음 한 소절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김순일 국악인
- 20 결과보다 동행, 사람을 먼저 세우는 스윙
프로골프 지도자 최태명 프로

BUSINESS : ON

- 23 하나님과 고객 앞에서 정직의 이름으로
금산자동차 이한영 대표
- 24 기도로 불을 지피고, 정성으로 굽는다
춘천산더덕숯불닭갈비 박진한·김효진 대표
- 25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허선생 안경 허남기 안경사
- 26 도면 위에 기도, 현장 위에 신뢰
서우건설디자인 박정신 대표

STORY : ON

- 28 작품에는 옷을, 가문에는 믿음을
예원표구사 김용철 사장
- 29 예수님이 입으실 옷처럼
모아그린 세탁소 고순옥 사장
- 30 꽃과 말씀, 한 장의 카드
수채화 화가 전명옥 작가
- 31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순옥 씨
- 32 나를 일으켜준 엄마 품 같은 교회
서정원 씨
- 33 소양교회에서 꿈꾸며 자라가요
근화초등학교 5학년 경예지
- 34 행복한 땀흘림
소양교회 배드민턴 동아리 이영·황보라 부부
- 35 목사님은 방송중 CBS RADIO 93.7Mhz
소양교회 김선일 담임목사

근화초 1학년 찐친들 교회친구 학교친구

근화초등학교 1학년 송하울



왼쪽부터 송하울 류에스터 류예하 장서우 왕혜윤 김라운

우리는 좋아하는 게 참 많아요

- 친구, 가족, 엄마 아빠,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하울이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이 기다려져요.
함께 등교하는 친구 때문이지요.
엄마 손 잡고 친구와 함께 대화하는 이 시간이
정말 재미있어요.

서우 어머니께서
학교에 함께 데려다 주실 때도 있어요.
엄마들은 같은 소양교회 집사님이셔서,
아빠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
수업이 끝나면 가끔 서우네 가서
간식을 먹고 놀기도 하지요.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악 아카데미에 함께 가서 노래를 배워요.

지난번 발표회 때는 넓은 교회 본당에서
멋진 드레스입고 동요를 불렀어요.
순서가 다가올수록 긴장됐지만,
무사히 마쳤을때 성도님들의 박수와 환호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주일 아침에는 함께 교회에 가요.
어린이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나 신나요.

3학년부터 할 수 있는 사무엘 성가대와
6학년 언니들의 찬양과 율동은 근사해 보여요.

특히 고학년부터는 해외 단기선교도 갈 수 있는데,
매년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 보며
우리들도 기대가 돼요.

유치원부터 근화초등학교,
소양교회 어린이교회까지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는 동갑내기 친구들이예요.

이번에 소양스타리버 아파트에 이사 온 친구들이
새로 전학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새친구를 사귀는 일은 멋진 일이니깐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늘어날 것이 기다려져요.



믿음 ON, 우리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학교기도불씨운동

2025년 6월 7일 신성감리교회에서 팀록위십을 초청하여 'The WIND'라는 주제로 첫 번째 학교기도불씨운동집회가 진행됐다.

소양성결교회 청소년·청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했고,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 학교에서 기도불씨운동이 일어났다. 25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춘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총 19개의 기도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기도모임은 학업과 교우관계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시기에 평안과 안정의 통로가 된다. 이 글을 읽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본인의 학교에 기도모임이 있는지 확인해본 후, 부담없이 기도모임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별 기도모임 소개

강원중학교 - (월) 08:00 - 영어교실 / 정시영
 남춘천중학교 - (화or목) 13:00~13:30 / 주예성
 남춘천여자중학교 - (수) 08:20 - 음악실 / 박솔지
 대릉중학교 - (화,목) 08:10 - 도서관 / 이효림
 봄내중학교 - (월,금) 점심시간 - 기술과정실 / 박수정
 우석중학교 - (월) 15:30 - 행복나눔실 / 박수진
 후평중학교 - (금) 13:20~13:30 - 음악실 / 김환이
 소양중학교 - (수) 13:00 - 주차장 옆 정자
 강원고등학교 - (화,목) 12:30 - 교실 / 서성현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 (수) 12:40 - 밴드부실 / 조은찬
 강원생명과학고등학교 - (월) 13:10 - 조화대 옆 벤치 / 한결
 봉의고등학교 - (금) 12:30 - 진로실 / 정시하
 성수고등학교 - (월) 13:10 - 음악실 옆 방 / 조승민
 성수여자고등학교 - (수) 12:05 / 문의 : 조은빈
 유봉여자고등학교 - (금) 13:05~13:15 - 책임관 2층 AI실 / 박하경
 전인고등학교 - (수) 18:40 - 기숙사 옆 경제컨테이너 / 민선홍
 춘천고등학교 - (월-금) 08:00 예배, (수or금) 15:00 모임-밴드실/나현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 (목,금) 12:30 / 최한결
 춘천여자고등학교 - (목) 13:20 / 위채은

이야기:ON _ 남춘천중학교 기도모임

남춘천중학교 1학년 신하진



남춘천중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 음악실에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아직 참여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연스레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학교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선후배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 학교 생활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 남춘천중 학생은 언제나 환영이다.

* 인스타그램 : pray_er.meeting

이야기:ON _ 춘천고등학교 기도모임

'에클레시아(Ekklesia)'
춘천고등학교 2학년 김은호



기도모임은 종교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고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기에 신앙이 없는 학생이라도 부담 없이 참여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며 따뜻한 분위기를 느껴보길 바란다.

현재 춘천고등학교의 기도모임은 매 주 수요일 오후3시 45분 음악실에서 진행된다. 학교와 학년별 일정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 주 평균 20명 정도가 꾸준히 모여 예배하고 있으니, 춘천고 학생은 누구라도 환영한다.

* 인스타그램 : cc_high_pray



Holiness Unity 거룩한 일치



“거룩한 일치”로 모인 은혜의 시간

지난 1월, ‘거룩한 일치(Holiness Unity)’ 라는 주제로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원지역 3개 지방회 연합 캠프가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에는 소양교회 청년·청소년을 포함하여 약 70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해 예배와 말씀, 찬양을 통해 ‘하나 됨’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

다양한 선택 특강(직업, 공부, 문화예술 등)을 통해 “신앙은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하기를 다짐했으며, 캠프 이후에도 교회간 교류하며 지역 전도와 섬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거룩한 일치’의 열매가 교회 안팎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로, 하이파이브!

여름에는 ‘하나님의 정의로 하이파이브!’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각 연령에 맞춘 예배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십계명’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소양교회 다음세대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현장과 믿음, 끝까지 지켜온 소방관의 길

The Life of Fire-Fighter

홍천소방서 최진호 소방경

1992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온 최진호 소방경.

지금도 그는 현장 최전선에서
지휘관으로서 동료들을 이끌며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제 2026년 정년 은퇴를 앞둔 그는 말한다.
“소방관의 길은 직업을 넘어 사명이었습니다.”

책임으로 기억되는 사건현장

1992년 소방관이 된 그는, 수많은 사건사고를 경험하며 현장의 무게를 배웠다. 소방관의 길을 걸어오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를 지탱해 온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제 내린천 구조 현장을 회상하며 급류에 휩쓸려 순간 죽음을 직감했던 순간, 돌부리에 부딪히며 더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기적처럼 살 수 있었음을 그는 은혜로 고백한다.

또한, 태풍 루사로 근무 중이던 속초소방서가 물에 잠겼던 일과 화재 진압 중 20대 젊은 후배 소방관이 순직했던 사건은 지금도 그의 가슴에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그는 늘 다짐한다.

“
절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 섬김

그의 사명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소방관의 자리에서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이어져야 한다”고 고백하는 그는, 피곤한 몸에도 교회의 예배와 심방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함께한다.

성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일은,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온 그의 소명과 닮아 있다.

은퇴를 앞두고 드리는 고백

현장 지휘관으로 마지막 임무를 감당하는 그는 이제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는 새로운 다짐을 남긴다.



“가족과 교회 뿐 아니라, 더 많은 이웃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남은 생애를 작은 예수로, 하나님이 맡기신 길을 성실히 걸어가겠습니다.”

사랑 ON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생을 돌보다

유봉여자중학교
보건교사 박혜영



“이웃 위해 달란트 써라” ... 시작된 보건교사의 길

2017년부터 유봉여자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박혜영 보건교사는 춘천으로 이사 후 소양교회에 출석하며, 현재 6학년 어린이들의 담임교사로도 섬기고 있다.

어느날 그녀는 꿈에서 “내가 준 달란트를 너는 가족만을 위해 사용했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에 충격을 받고, 간호학과 진학 당시 ‘가장 낮아진 마음을 지닌 분들의 힘이 되어 주겠다’던 다짐을 기억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간호사 면허와 보건교사 자격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이 아파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후, 유봉여중 보건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덕분에 버텼다” ... 회복의 순간이 주는 보람

보건교사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녀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중학교 3년 동안 공황장애로 매일 보건실을 찾던 학생이 졸업하며 “선생님 덕분에 중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힘이 되었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남긴 일, 그리고 속을 많이 썩이던 학생이 3학년이 되며 변화하고, 졸업하며 진심 어린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했을 때 그녀는 “보건교사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사랑ON, 모든 학생에게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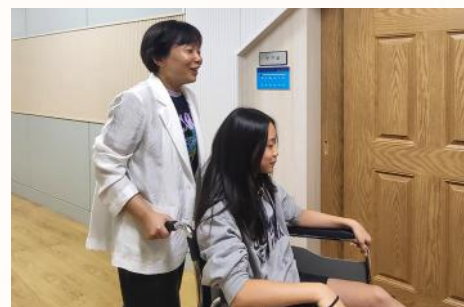
기독교사로서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학생들을 대한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은 성적 압박이나 다른 문제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다. 사람인지라 감정 조절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학생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다.

‘사랑이 채워져야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고 말하는 박혜영 교사.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소양성결교회를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따뜻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며 본지의 인터뷰를 마쳤다.



신앙으로 걷는 정의와 성실의 길

justice and integrity

변호사민세영법률사무소
민세영 변호사



정의와 사랑을 향한 첫걸음

한 권의 책이 길을 열었다.

어린 시절 읽은 『레미제라블』은 용서와 정의, 인간애의 장면들을 그의 마음에 새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꿈꾸게 했다. 2005년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가 되었고, 201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발령을 계기로 춘천과 인연을 맺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도시의 여유 속에서 그는 결국 정착을 택했고,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의 분쟁과 일상을 곁에서 돕고 있다.

유혹을 넘어 원칙으로

법조 현장은 갈등과 상처가 모이는 자리다. 때로는 거짓을 대변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을 권하는 유혹도 스친다. 민세영 변호사는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원칙을 확인한다.

무죄·승소로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도 크지만, 당사자들이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할 때 그는 “법이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라디오에서 시작된 ‘다시’

춘천에 온 뒤에도 한동안 서울의 교회를 다녔지만, 출산과 코로나19로 신앙의 발걸음이 멈추기도 했다. 전환점은 라디오였다. CBS에서 흘러나온 김선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 소양교회를 찾았다. 2023년 등록과 세례로 믿음의 길을 새로 시작했고, 아이는 유치부에서 즐겁게 신앙을 배우고 있다. 따뜻한 공동체의 돌봄은 그의 일상에 정착의 힘이 되어 주었다.

말씀과 기도로 견디는 법

어머니의 암 투병을 겪으며 간절한 기도가 그의 마음에 믿음을 심었다. 지금도 그는 성경과 설교, 짧은 기도로 마음을 정돈한다. 일의 무게가 두려울 때, 방향이 흐려질 때 그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소명을 다시 붙든다. 전문가의 냉정함과 이웃을 향한 따뜻함—두 축을 균형 있게 세우는 일이 그의 신앙 훈련이다.

법을 통해 드러낼 공의와 사랑

민세영 변호사는 말한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제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소양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역 이웃을 섬기며,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법의 언어로 돕는 일, 갈등의 자리에 화해의 길을 여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서비스를 넘어 가족처럼

큰사랑노인복지센터 박유순 대표 이야기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큰사랑노인복지센터는 2024년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에서 신뢰를 인정받았다. 박유순 대표는 화려한 성과보다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는 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며 일해 왔다.

가족처럼 모시는 마음

큰사랑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도움을 드리는 기관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가족처럼 섬기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박 대표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 내 가족처럼 모셔야 한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며, 요양보호사들과의 소통과 교육을 통해 그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어르신의 웃음을 되찾다

센터 운영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르신과 가족이 변화를 경험할 때다. 낯선 방문 요양 서비스에 어색해하던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와 친밀해지면서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예전의 웃음을 보여줄 때 박 대표는 큰 보람을 느꼈다. 가족들이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그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음을 실감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운영은 늘 쉽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다양한 가정의 상황을 조율하는 일은 늘 도전이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믿고 기도로 버텨 왔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걸음씩 감당해 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과 정성으로 센터를 운영한 결과, 그 노력을 인정 받아 2024년 인증평가에서 전국 2등, 강원도 1등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회에서 이어지는 섬김

박유순 대표는 교회 안에서도 늘 섬김의 자리를 지켜왔다. 어르신 섬김 행사와 반찬 봉사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함께하며, 작은 손길로도 기쁨을 나눈다. 교회에서의 섬김은 복지센터에서의 일과 뿌리가 같다고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길

앞으로의 소망은 분명하다.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더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어 가고,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존중받으며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지난 10년간 큰사랑노인복지센터가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잡았듯, 앞으로도 그는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

춘천시 발달장애주간활동센터 조은애 센터장



춘천시발달장애주간활동센터를 이끄는 조은애 센터장은 “돌봄”을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낮 시간의 하루를 의미 있게 바꾸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춘천 최초의 주간활동센터

춘천시발달장애주간활동센터는 지역 최초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현재 40여 개 프로그램(문화체험, 직업탐색, 요리, 음악·미술치료 등)을 운영하며 외부 활동도 절반 이상 지원한다.

목표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립의 경험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다. 카페에 5분도 머물지 못하던 이용자가 영화관 나들이를 소화하고, 보호자가 “아이의 변화가 보인다”고 말하는 순간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도전적 행동’을 다르게 보기

센터에는 중증 이용자와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이들도 많다. 조은애 센터장은 자해·폭언·타해를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이해하고, 강요보다 신뢰 형성과 자발적 변화를 기다린다.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인내·사랑으로 쌓이는 시간의 결과라고 믿는다.

감정을 품고, 회복을 배우며

돌봄은 기쁘지만, 받아내야 하는 감정의 무게도 역시 크다. 그래서 “100을 주고 10이 돌아와도, 언젠가 그 10이 100이 된다”는 믿음으로 틈을 이끈다.

스스로는 여행·뜨개질 같은 회복 루틴으로 마음을 비우고, 주일이면 소양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직원들에게도 “오래 건강하게 사역하려면 각자의 회복 방법을 꼭 가지라”고 당부한다. 사려 깊은 한마디, 작은 격려가 팀의 버팀목이 된다.

교회로 이어지는 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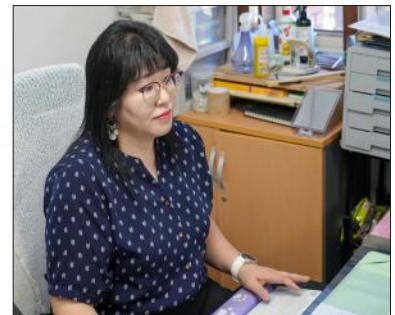
20대에는 사회복지사의 길이 부담스러웠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방향이 선명해졌다. 부족한 조건에도 문이 열렸고, 팀장으로 시작해 4년 만에 센터장이 되었다. 그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확신한다.

그녀는 주일이면 소양교회 유아교회 교사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린다.

낮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섬김의 축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사랑의 통로로 남기를

“센터가 사랑의 통로로 남도록,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고 싶다.”는 조은애 센터장은 센터가 함께 기도하고 걸어온 공동체의 결과라고 고백한다. 그는 오늘도 이용자와 보호자, 동료들을 위해 기도한다.





질병을 넘어 삶을 살피는 의사

서울아산내과의원 김은진 원장

어릴 적부터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한 소녀는
2009년 의사가 되어 17년차 의사로,
2014년 전문의가 되어 12년차 내과의사이다.
2016년 춘천 온의동에 서울아산내과의를원을 개원하여
9년째 마음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

병원도, 가정도, 교회도 사역지

김은진 원장은 병원과 가정, 교회 모두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의 자리’라고 믿는다.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두 아들을 양육하는 것, 교회에서 글로벌 찬양팀의 보컬로 섬기며 전도회와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 병원에서 환자를 마주하며 올바른 진료를 이어가는 것 모두 그녀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돌본다.”

서울아산내과위원의 김은진 원장과 김은영 실장(소양교회)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진료한다.

“병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 그의 진료 철학이다.

환자와의 만남, 은혜의 순간들

서울아산내과위원의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과 김 원장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간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성으로 진료하고 마음을 다한 위로를 건네는 김 원장을 통해 환자들은 몸의 질병과 마음의 그림자를 함께 치유받는다.

마음을 다한 진료에 고마움을 느끼고 직접 만든 음식과 직원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챙겨주는 환자들도 있다.

예배 속에서 만난 진리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새벽기도는 그의 삶을 크게 바꾸었다. 권태와 우울이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

최근 그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있다.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자신이 속한 교회 예배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유명한 프로그램보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에 끝까지 참여해 보세요. 불평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춘천 소양교회에 있습니다.”

판단보다 공감으로

맑은정신건강의학과 신기택 원장

서울에서 의대를 마치고

춘천에 정착해 '맑은건강정신의학'을 열었다.

진료실의 공기를 부드럽게 바꾸고,

치료의 언어를 쉽게 풀어내는 정신과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시선은 소양교회 공동체에서 자란 믿음과 만난다.



춘천에 뿌리내린 의사

수련의 과정을 마치면 서울로 돌아가려 했지만, 춘천이 주는 편안함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소양교회는 그와 가족의 춘천 정착에 결정적인 힘이 됐다. 예배와 교제 속에서 일상은 안정되었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감각이 단단해졌다. 진료실에도 교회와 사역자 가정의 종종 찾아온다. 그는 신앙의 언어를 이해하는 의사로서 편견 없이 듣고, 안전하게 설명하는 다리가 되려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직업과 믿음이 따로 서 있지 않다”는 확신을 키웠다.

개원 7년 차, 지금의 병원은 그의 일터이자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정신과 진료가 더 덜 딱딱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료 환경을 설계했다.

밝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복합적인 치료의 방향을 고려하여 환자 스스로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는다.

신앙이 비추는 진료 철학, 공감

오랜 시간 고통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든 경직되기 쉽다. 그럴수록 그는 마음속 문장을 바꾼다. “왜 저렇게 살지?” 대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죄가 아닌 공감의 시선을 훈련하는 일—그는 이것을 예배에서 배운다.

의학적 판단은 냉정하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따뜻하게.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요구가 많은 이들을 대할 때도 “품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가족이 함께 회복한 사례다. 각각의 어려움으로 지친 가족에게 그는 개인 면담과 가족 상담을 병행했고, 시간이 지나 모두가 “그때 선생님 아니었으면 버티기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여전히 누군가는 정신과 진료를 죄책감이나 신앙 부족과 연결해 주저한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마음의 병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받듯, 마음이 아플 때도 의학적·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다. 반드시 자신의 병원이 아니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티지 않는 것이다.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서울삼성산부인과 김지영 원장

여성의 몸과 마음을 품는 진료가 가능할까.
산부인과 전문의 15년 차인 김지영 원장은 진료실을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무는 자리”로 꿈꾼다.
그는 오늘도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환자를 맞이한다.

의사의 길, 여성의 길을 택하다

의대 시절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전쟁과 빈곤 속에 방치된 여성들의 현실을 마주했다.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은 진로를 바꾸는 기점이 되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평생 과업으로 삼겠다는 다짐. 그 결심이 그를 산부인과로 이끌었다. 이후 진료 현장에서 청소년기의 첫 상담부터 임신·출산, 폐경 이후의 관리까지 여성 생애 전주기를 동행해 왔다.

편안하게 묻고, 끝까지 돕는 진료

서울삼성산부인과는 묻기 어려웠던 질문을 편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증상과 검사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 초음파·호르몬 검사·감염 스크리닝 등으로 치료 계획을 구체화한다. 임신·출산 관리와 더불어 여성 갱년기, 비뇨·부인과 질환, 미세 시술까지 폭넓게 다룬다. 김 원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불안을 먼저 덜어주는 일”을 진료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잊지 못할 장면들

진료실은 때로 작은 드라마의 무대가 된다. 임신 유지를 포기하려던 이가 상담과 진료를 거쳐 마음을 돌리고 무사히 출산에 이르는 순간, 의료진의 기쁨도 깊어진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환자가 기도를 요청해 함께 손을 맞잡았던 날도 기억에 남는다. 이후 수술 일정이 앞당겨지고 몸 상태가 호전돼 감사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을 때, 김 원장은 “치료가 몸을 고치는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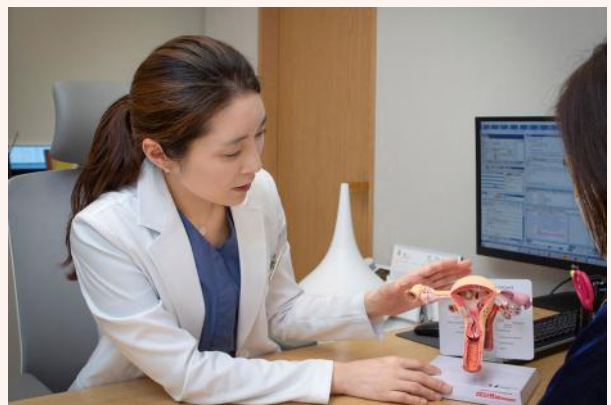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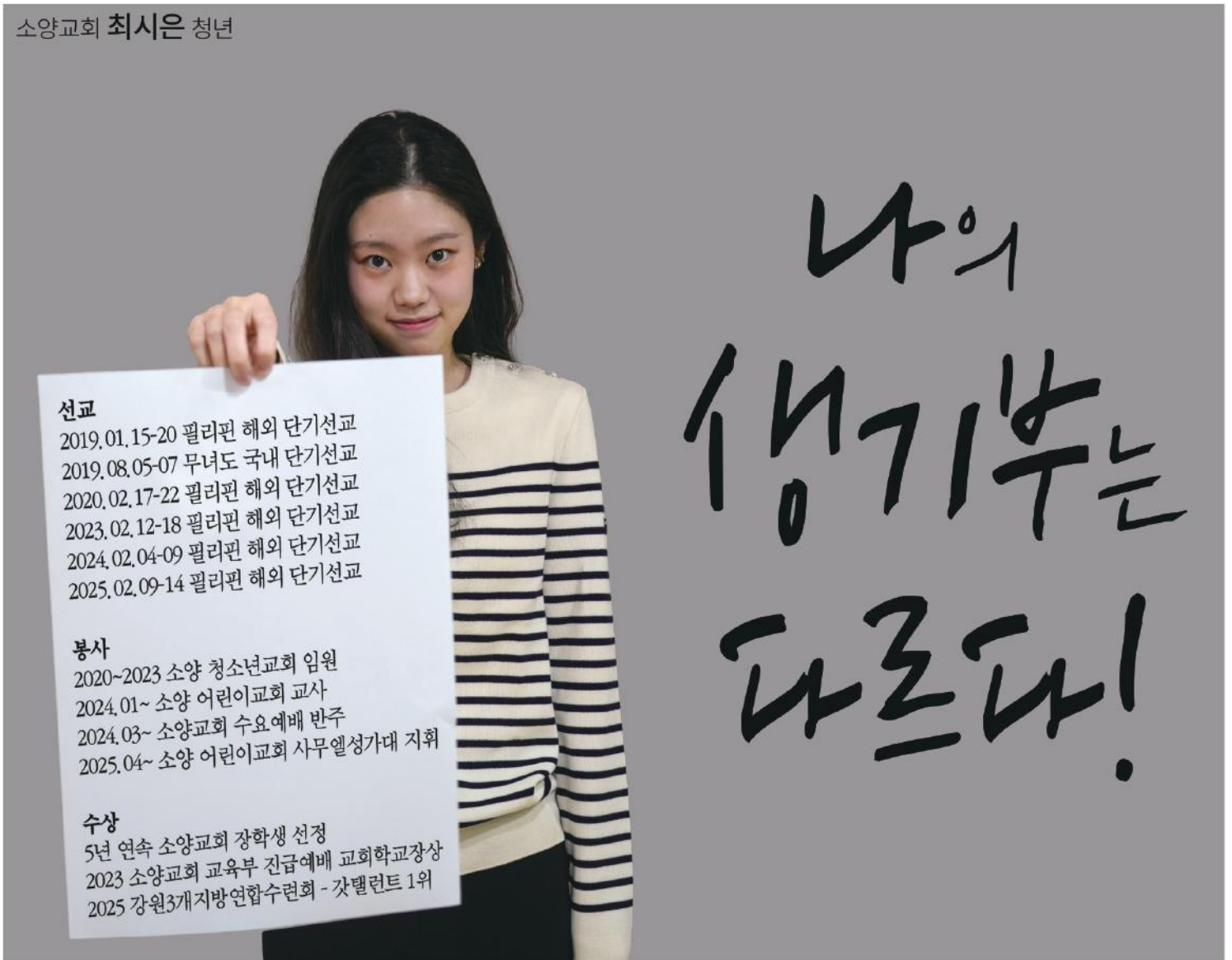
소양교회 예배에서 진료실까지

김지영 원장의 진료 철학은 소양교회의 예배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루의 힘을 얻고, 환자를 ‘작은 예수님’처럼 대하겠다는 결심을 새로 한다. 필요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존중과 섬김으로 다가간다. 교회에서 받은 위로와 격려는 진료실에서 공감과 배려로 번역되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앞으로의 비전

김 원장은 병원을 작은 집터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치료 후에도 환자가 다시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의학적 정확성과 인간적인 공감 사이의 균형을 더 단단히 세워갈 계획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진료”—그가 매일 새로 쓰는 처방전의 첫 줄이다.





선교

2019.01.15-20 필리핀 해외 단기선교
2019.08.05-07 무녀도 국내 단기선교
2020.02.17-22 필리핀 해외 단기선교
2023.02.12-18 필리핀 해외 단기선교
2024.02.04-09 필리핀 해외 단기선교
2025.02.09-14 필리핀 해외 단기선교

봉사

2020~2023 소양 청소년교회 임원
2024.01~ 소양 어린이교회 교사
2024.03~ 소양교회 수요예배 반주
2025.04~ 소양 어린이교회 사무엘성가대 지휘

수상

5년 연속 소양교회 장학생 선정
2023 소양교회 교육부 진급예배 교회학교장상
2025 강원3개지방연합수련회 - 갯텔런트 1위

나의
생기록은
다르다!

부활의 생기를 전하는 소양교회 다음세대



박시는 박하민 김하울 박채하 이수이
임서윤 김하은

박송준 신하진
신하민 임승혁

어린이 하리단기선교나
청소년 국내단기선교,
청년 단기 봉사를 통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과 바늘로 잇는 전통과 일상

‘지음규방공예’ 이미지 작가

색실, 천 조각, 그리고 작은 도안이 정갈하게 놓여 있는 작업대 위.

완성된 작품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짝 밝혀 주길 소망하며 오늘도 이미정 작가는 “기도”를 한 땀씩 엮는다.

바느질 한 땀에 담은 마음

이미정 작가의 공방은 전통 바느질과 현대적 감각을 가볍게 잇는다. 작은 실 크 원단 본견으로 조각보를 만들고, 남은 원단은 실용적인 소품(복주머니, 책갈피, 키링 등)으로 새로이 생명을 불어 넣어 일상에 스며들게 한다.

항상 바늘을 들기 전, 짧게 기도한다.

“이 작품을 받을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해 주세요.” 단정한 바느질선은 치유의 리듬이 되고, 남은 천을 보듬는 일은 ‘회복’의 은유가 된다. 그래서 공방에선 “실수를 덮는 한 겹”이 창피가 아니라 디자인이 된다. 버려질 조각이 더 아름답게 돌아오는 순간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이유다.

신앙으로 이어지는 손길

그녀의 하루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손은 바쁘고, 마음은 기도 중에 머물른다고 하는 그녀는 작품을 만들며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작은 태에 적어 매달고, 심방·새가족 환영 선물이나 교회 바자회에 손수 만든 소품을 보낸다.

소양교회 공동체는 그의 든든한 배경이다.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교회는 함께 울고 웃으며 그녀와 함께 했다.

조용한 초대

명동 지하상가 작은 간판 아래 문이 열려 있다. 완벽한 손기술이 없어도 좋다. 한 줄 박음질, 한 줄 말쌈, 한 줄 기도 그가 준비한 수업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소양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다시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녀는 오늘도 문을 열고 조용히 기도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춘천 명동 지하상이 작은 공방.
수기래더의 이미숙 작가는
가족보다 먼저 마음을 만진다.

하루의 첫 공정은 기도,
마지막 마감은 감사.

공방은
그의 일터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자리다.



가족을 다듬듯 마음도 어루만지는 자리

‘수기래더’ 이미숙 작가

손보다 먼저 드리는 것, 기도

수기래더의 하루는 짧은 묵상과 기도로 시작된다.

“오래 쓰이며, 평안이 함께하길.”

그녀는 완성된 작품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바늘을 잡는 손끝마다 축복의 마음을 새겨나간다.

변하지 않는 원칙, 정직

수기래더는 지갑, 키링, 스트랩 등 생활 속 소품을 제작하고 간단한 수선을 맡는다. 공정은 단순하지만 원칙은 분명하다. 정직한 소재, 정직한 시간, 정직한 가격. 필요 이상의 것을 권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동행의 기술

그녀는 신앙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열린 작업실’을 지향한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초 가죽공예를 가르치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해 본 사람은 자신도 완성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신앙이 일상이 되는 자리

소양교회에서의 예배는 이미숙 집사에게 단순한 ‘주일의 의무’가 아니다. 그녀에게 예배는 일터의 리듬을 만드는 중심이자, 하루의 기준이 된다. 공방에서 재단과 봉제를 반복하는 시간 속에도 말씀 한 구절이 마음을 붙든다.

단단한 가족을 다듬듯 마음을 다듬으며, 매일의 일상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간다. 손 끝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손에 꼭 붙들고, 그녀는 조용한 작업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채워나간다.





시간(時間)을 입히는 사람

‘고전진의’ 한복 디자이너 박진옥 작가

박진옥 작가는 한 벌의 옷이 한 사람의 인생을 품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고전진의’의 모든 한복은 처음 구상부터 마지막 매무새까지
한 사람의 손을 거친다.
한 땀 한 땀,
그는 오늘도 바늘 끝에 시간을 꿰맨다.



옷으로 이어진 길, 업(業)이 된 손

한복을 시작한 이유가 극적이진 않았다. 의상학 전공으로 자연스레 업계에 발을 들였고, 취업도 제작 현장을 택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는 옷에 마음이 기울었다. 1:1 맞춤 수작업을 고수하는 ‘고전진의’의 원칙도 거기서 나왔다. 양극화되는 시장 속에서도 그는 정교한 맞춤과 내구성을 갖춘 자체 브랜드를 고집한다.

작업대엔 늘 논문과 실물 패턴이 함께 놓인다. 기능경기대회로 다진 바느질, 전승공예대전이 요구하는 전통 봉제법을 재현하려면 문헌을 읽고 손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전과 공모는 실력을 증명하고, 작업 윤리를 점검하는 장이 된다.

코로나의 신부, 한 장의 사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던 시절,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치른 신부가 있었다. 박 작가는 작업실을 임시 사진관으로 열어 가족이 한복을 입고 함께 사진을 남기게 했다. 며칠 뒤 부친은 세상을 떠났고, 그 사진은 관 속에 함께 들어갔다. 그 이후 그는 혼례복과 더불어 수의(壽衣)의 품질과 정성에도 마음을 기울인다. 보이는 화려함보다 삶의 마무리를 단정히 감싸는 품위가 한복의 또 다른 사명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 벌의 옷이 위로가 되고, 마지막을 품위 있게 감쌀 수 있을까. 박진옥 작가는 그 질문에 바늘과 실로 답한다. 오늘도 그의 작업대 위에서, 누군가의 결정적인 하루가 단정해지고 있다.

전통과 신앙 사이, 교회에서 배운 호흡

전통 색채나 길상(吉祥) 문양을 설명하다 보면 민속 신앙의 맥락을 건드리게 된다. 그는 그것이 신앙과 충돌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 그 설명은 어디까지나 문화사적 배경과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는 일이다.

박 작가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한다. 오늘의 공정, 맞춤 의뢰인, 봉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묻고 작업대 앞에 선다. 주일 예배는 바쁜 일정 속 숨 고르기가 되고, 완성한 옷에는 의뢰인을 위한 축복의 마음을 덧입힌다. 공방과 예배당은 다른 공간이지만, 그에게는 모두 누군가의 하루를 단정히 보듬는 자리다.

musical 무대 위에서 자라는 배우

뮤지컬 배우 차유은 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 뮤지컬 배우 차유은.

유은이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순간 가장 빛난다.

레미제라블, 애니를 거쳐 현재는 샤롯데씨어터에서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막내딸 '나탈리'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레미제라블
'어린 에포닌'



애니
'제시'



미세스 다웃파이어
'나탈리'

소양교회에서 시작된 꿈



유은이가 처음 무대의 즐거움을 맛본 곳은 교회였다. 유아교회에서 찬양과 율동을 하며 무대를 자연스럽게 접했고, 이후 소양아카데미에서 배진은 선생님께서 성악을 배우면서 호흡과 발성, 곡 해석을 체계적으로 다졌다.

본격적으로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유은이는 2학년 때 레미제라블의 어린 에포닌, 3학년 때 애니의 제시, 4학년이 된 지금은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나탈리로 캐릭터의 결을 또렷하게 그려낸다. 자신의 연기가 “역할에 딱 맞는다”는 평을 들을 때, 그는 다음 역할을 향한 용기를 얻는다.

행복을 나누는 순간

유은이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막이 오르고 관객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무대 위에서 누구든 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벅차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의 얼굴에 웃음과 여운이 남아 있으면 “오늘 무대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했구나”라는 확신이 든다.



2025년 5월 17일, 옥주현 with Friends 뮤지컬 콘서트 in 춘천

기도로 준비하는 무대, 교회에서 배운 마음

작품에 참여할 때면 크리스천 배우들이 함께 모여 공연 전 기도 모임 시간을 갖는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 떨림이 잦아들고 진정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확신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 믿음의 시작은 소양교회였다. 유은이는 소양교회를 “누구나 은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 어려서부터 받은 많은 사랑과 격려는 유은이의 삶을 가득 채워, 공연장에서는 공감과 배려로 번역되어 동료와 관객에게 전해진다.

유은이의 목표는 분명하다. 다양한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으로 소화하는 배우, 무대에 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받은 재능을 이웃에게 기쁨과 감동으로 돌려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



관객의 마음을 바꾸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배우 조찬연

“무대에서 박수가 터질 때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 순간 배우의 꿈이 시작됐다.”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연기과에 재학 중인 그는 지금도 “관객 한 사람은 하나의 세계”라고 믿는다. 그래서 연기 수업이 끝나면 글을 쓰고, 밤에는 리허설을 돌며 다음 무대를 준비한다.

배우를 넘어, 창작자로

중학교 시절, 월드비전이 주최한 뮤지컬 <그리스>에 참여했다. 노래하고 춤추며 무대를 누비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살아 있음을 느꼈다. 학원 없이 혼자 준비했던 입시 과정은 배우로서의 자기주도성을 키웠고, 대학교에 와서는 교수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흡수해 현장 언어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그는 무대에 서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에 참여하며 창작자의 자리로 보폭을 넓힌다.

강원도의 소양강댐 수몰민의 삶을 다룬 연극 <에레니의 외갓집에 온 당신>에 출연해, 실재 인물의 증언을 무대 언어로 옮기는 과정을 몸으로 배웠다. 공연을 본 아버지가 “이제 하고 싶은 연기를 하라”고 허락한 장면은 지금도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월드 2인극 페스티벌에서는 <우린 아직 오월에 머물고 있습니다>를 직접 집필·연출·출연했다. 광주 동성로 광장에서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우리의 아픔을 무대에 올려 달라”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며, 연기는 누군가의 삶을 녹여내는 일임을 다시 확인했다.

교회, 무대 밖에서 배우는 공감

조찬연에게 소양교회는 극장만큼 소중한 훈련의 장이다. 예배에서 경험하는 위로와 어머니의 기도는 불안과 슬럼프를 지나게 한 버팀목이었다.

그는 “작품 속 캐릭터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배우”를 꿈꾼다. 악역도 마다하지 않되, 악이 선에 패배하는 이야기 속에서 관객이 선의 힘을 느끼게 하는 선택을 하겠다는 기준이 분명하다.

신앙이 비춘 연기의 방향

스무 살 초반의 낭만이 가시고 현실의 벽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기도와 창작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상업적 작품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 끝에, 스스로 연극과 영화를 만드는 창작 회사를 세우는 비전을 품었다. 청소년들에게 신앙적 세계관을 담은 공연을 경험의 형태로 선물하는 것이 그의 장기 목표다.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감사로 서게 하시고, 무대를 떠날 때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밝아지게 해주세요.”



<공연 안내>

일시: 2025년 11월 16일(일) 오후 5시
장소: 극장동국(종로구 창경궁로 259)
작품: 조찬연 작·연출 2인극(창작극 “소원”)
문의: 010-3967-7735



온라인 예배



민요 한 자락 복음 한 소절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 김순일 국악인

성가대 장구 연주로 시작된 작은 순종은
이제 평생의 소명이 되었다.
전국팔도를 넘어 해외까지.
국악의 소리와 복음의 소리는 함께 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오늘의 감사 찬송가 되었다.



장구에서 시작해 ‘사사(師事)’로 깊어지다

김순일 국악인의 출발선은 소양교회 성가대였다. 피아노 반주에 장구가락을 곁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배우게 되었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 이은주 선생님의 체계적인 가르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이수자가 된 후, 정중앙 전통소리보존회 등 두 곳에서 국악원을 운영하면서 전통소리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문화예술진흥유공(2013), 지방문화발전유공(2012) 수상을 하기도 했다.



무대와 교실을 잇다—교육·공연의 결실



무대 뒤에서 더 오래, 더 꾸준했던 일은 ‘가르침’이다. 1999년부터 양구문화원 민요 강사로 활동을 시작한 후 춘천·홍천문화원, 홍천마리

소리골 악기박물관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소리를 사사하였으며, 한 때는 춘천과 부안을 비롯하여 5개 초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요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내 공연으로는 2006년부터 매년 단독 주최·주관하는 정기국악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문화소의 지역을 대상으로 40회 이상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공연을 추진하는 등 우리의 전통소리를 심었다.

해외 공연은 러시아 하바로브스크(광복60주년 아리랑 콘서트, 2025), 북한 금강산(남북 강원 민속문화축전, 2025), 블라디보스토크(광복 70주년 통일기원 음악회, 2015), 중국 훈춘(2007)·청도(2018)등에서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

예배와 신앙의 자리—갈릴리 국악 찬양단

예배는 그의 중심이다.

김 국악인은 개인 특송보다 ‘갈릴리 국악 찬양단’과 같은 공동 섬김을 우선해 왔다. 특히故이원호 목사와 함께 전국 팔도와 해외 부흥집회에 동행하며,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국악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 여정에서 ‘우리 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금도 갈릴리 국악 찬양단은 교회 예배와 지역 행사에서 꾸준히 찬양 사역을 이어 가고 있으며, 그는 “예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이라 고백한다. 손목 통증으로 악기 연주는 줄었지만, 목소리와 가락으로 빈자리를 채운다.

김순일 국악인은 스포트라이트보다 공동체의 하모니를 택해 왔다. 앞으로도 교회와 지역, 때로는 국경을 넘어 우리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결과보다 동행, 사람을 먼저 세우는 스윙

최고의 프로골프 지도자 최태명 프로



14살, “공 하나 제대로 맞히고 싶다”는 승부욕으로 시작된 골프가 인생을 바꾸었다. 21살 아버지의 갑작스런 쓰러짐으로 투어의 꿈을 잠시 접고 가장이 되었고, 그 선택은 30여 년 티칭프로의 길로 이어졌다. 지금 그는 레슨장에선 스승으로, 소양교회에선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자인 그는 은혜의 자취를 따라, 오늘도 스윙과 예배 사이를 충실히 걸어간다.

승부욕이 소명이 되어

‘힘으로 겨루는 운동’을 좋아하던 소년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잡은 골프 클럽 앞에서 ‘한 달만 해보자.’ 생각했고 그 때 잡은 클럽이 평생의 도구가 되었다. 타고난 운동 신경으로 실력은 금세 올라 20대 초반, 그는 2부 투어를 뛰며 미국·일본 무대를 꿈꾸었다.

그러나 21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비와 집안 살림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골프 클럽을 내려놓고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손에 잡으려 했다. 그러나 험한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이상하리만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느꼈다. 노숙에 가까운 불편한 생활을 버텨내고 지도자의 길을 걷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가 가르치는 첫머리는 스윙이 아니다. 샷은 하루에도 변하고, 스코어는 계절마다 요동하지만, 남는 건 예의, 성실, 공동체에서의 배려 같은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며, 태도를 우선하여 가르친다.

그는 대회 전 선수와 함께 기도해 주고, 무너지던 루틴을 ‘호흡 - 기도 - 스윙’으로 다잡아 준다. 시즌이 끝나면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각자의 ‘올해의 배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한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꿈

다음 세대를 위한 ‘골프·신앙 멘토링’도 그의 기도 제목이다. 방학마다 짧은 집중 레슨과 신앙 나눔을 엮은 작은 캠프, 대회 전후로 드리는 짧은 예배, 부상과 슬럼프를 지나온 선배들의 간증... 그는 골프와 신앙이 어색 없이 만나도록 프로그램을 가다듬고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만난 학부모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같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누구와 걷느냐의 문제니까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충실히 걸으십시오. 거기서 길이 납니다.”



현재 최태명 프로의 둘째 딸 예나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체력훈련과 스윙 교정을 꾸준히 병행하고, 스스로 세운 루틴을 지켜 프로 무대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평일엔 연습장과 체력실을 오가고, 주말엔 소양교회 예배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원칙이다. 최 프로는 기술·멘탈·신앙을 함께 코칭하고, 예나는 이를 발판으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프로 테스트를 준비중이다.

소양교회, 중심을 잡는 ‘베이스캠프’

그에게 소양교회는 베이스캠프다.
삶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베이스캠프는 더 중요해진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그를 다시 코치로, 아버지로, 장로로 서게 한다. 그는 하루를 준비하며 스케줄 표에 신앙의 리듬을 먼저 기록한다. “예배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성도들의 응원과 기도가 저를 지탱해줍니다.”



매 주일, 그는 예배시간 찬양을 인도한다. 찬양 인도는 그의 훈련장이자 쉼터다. 한 주의 피로가 켜켜이 쌓인 성도들의 표정이 찬양을 통해 조금씩 풀리고, 그 끝에 눈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필드를 누비고 있다.

최태명 프로의 인생 향로는
계획된 곡선이 아니라,
은혜가 그려 준 궤적이었다.

투어 선수의 빠른 탄도 대신,
스승의 묵직한 구질로 날아온 30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립을 고쳐 잡는다.



103



김삼수 권사님택

교패 두개

30년 전, 입주예배 후 현관에 교회 교패를 붙였습니다.
교패를 붙이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축복이 기억납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고 구역예배 드리며 세월이 쌓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새로 만든 교패를 붙여서 두 개가 되었습니다.
새것도 좋지만 처음 것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이 우리가정과 함께한 흔적같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출가했고 술한 사연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고 교회입니다.
자랑스런 소양성결교회 교인 입니다.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담임목사 김 선 일

24269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3번길 19
TEL 033-253-2004~5 FAX 033-244-3005
Homepage www.soyang.or.kr



춘천에서 나고 자란 이한영 대표는 소양교회에 뿌리를 둔 사람이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는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온성가대의 한 자리를 지키며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시 일어섰다.

그 신앙의 리듬은 오늘, 중고차 영업 현장에서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다.

하나님과 고객 앞에서 ‘정직’의 이름으로

금산자동차 이한영 대표

돌아온 춘천, 시작된 두 번째 커리어

서울에서 통신 분야 기술영업을 하던 그는 50세를 앞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2020년 하반기 ‘금산자동차’를 열었다.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배운 방식으로 한 걸음씩 정석을 밟았다.

성능점검기록부를 기반으로 차량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비 이력을 숨기지 않는 투명한 절차를 이루어간다.

그리고 소비자 사이트가 아닌 딜러 전용 거래망으로 매물을 조회해 실제 존재하는 차량만 제시하여 허위·낱시 매물을 배제한다.

이후 옵션 비교, 시운전 동행, 계약·탁송 뿐 아니라 기존 차량의 처분까지 ‘처음 안내자, 마지막 확인자’로 끝까지 동행하며 책임을 다한다.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한영 대표의 중고차 영업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는 거래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으로 여긴다. 계약서에 사인을 받기 전,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다. 설명은 충분했는가, 점검은 철저했는가, 이 선택이 고객에게 선한가. 예배당에서 배운 그 질문들이 계약서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표에게 중고차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과 검증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다.

그래서 때로는 값 깎기보다 신뢰가 먼저인 손님을 만난다. “결국 남는 건 관계”라는 그의 원칙은 이렇게 확인된다.



신뢰의 원천, 소양교회

그가 꿈꾸는 금산자동차는 ‘싸게’보다 ‘바르게’, ‘빨리’보다 ‘깊게’를 선택한다. 원하는 매물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 직접 보지 못해도, 대신 확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의 배경에는 늘 소양교회의 예배가 있다.

이 대표는 소양교회에서 성장했다. 삶이 버거울 때마다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등을 떠밀었고, 예배와 기도는 마음의 기준선이 되었다. 지금도 그는 시온성가대에서 목소리로 교회를 섬긴다. 연습을 마치고 주일 예배에 서면, 한 주의 피로가 걷히고 다시 정직과 배려를 선택할 힘이 생긴다.

하루하루 예배로 마음을 정돈하고, 일터에서는 정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며 좋은 결과를 위한 좋은 과정을 만들어가며 고객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기도로 불을 지피고, 정성으로 굽는다

춘천원조산더덕숯불닭갈비
박진한·김효진 대표

1995년 낙원동. 명동에 닭갈비집들이 모여 있던 시절,
낙원동에서 처음 숯불을 피웠다.

더덕을 곁들인 숯불닭갈비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훗날 낙원닭갈비 골목의 출발점이 됐다.

대물림의 시작

1대 대표 김월예가 1995년 문을 열었고, ITX 개통 이후
손님이 몰리자 2011년부터 아들 부부가 운영을 도왔다.
지금은 2대가 가게를 이끌며, “처음 맛 그대로”를 목표로
불과 시간을 관리한다. 이름처럼 더덕을 곁들인 숯불닭갈
비가 시그니처. 매운 맛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간장·
소금 닭갈비, 식사로는 막국수·된장찌개, 아이들을 위한
주먹밥까지 구성했다.

손님이 만든 지도

이 집의 단골은 지도가 넓다. 전라·부산·제주에서 일부
러 찾아오고, 미국에서 1년에 1~2번 귀국할 때마다 들르
는 손님도 있다. 때로는 “이 맛을 기다렸다”는 한마디가,
긴 주말 영업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교회와 성경을 통해 배운 절대 원칙 ‘극진한 대접’

그들의 운영 철학은 ‘극진한 대접’이다. 찾아오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손님처럼 예우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하
는 태도로 맞이한다. 맛은 기술이지만, 대접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매일 확인한다.

박진한·김효진 대표에게 장사는 생계만이 아니다. 문을
열기 전 짧게 기도로 마음을 정돈하고, 소양교회 예배에
서 배운 감사와 섬김이 가게의 하루를 채운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기도는 바쁜 계절에도 흔들
리지 않게 불들어 준다. “먹는 일이 곧 위로가 될 수 있다”
는 믿음은 주일의 예배에서, 평일의 주방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두 대표의 소망은 단순하다. 처음 배운 것처럼, 처음 마
음으로. 초심의 불맛을 지키고,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대접을 건네는 것. 지역과 교회에 선한 향기가 되는 식당.
그들이 매일 불을 지피는 이유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허선생 안경 허남기 안경사

퇴계동 한숲시티 맞은편, 예약제로 운영되는 작은 안경원. 허남기 안경사는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리는 원칙으로 3년째 검안과 피팅에 몰두하고 있다.

매장 문을 연 이유도 단순했다. “검사를 더 꼼꼼히, 상담을 더 정확히 하고 싶었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시야를 밝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검안부터 피팅까지, ‘정밀하게’

허선생 안경원은 사전 예약제로 상담과 검안을 진행하며, 기본 시력 측정 후에도 생활 속 거리와 습관, 난시 정도까지 세심히 살핀다.

작은 홀리내림 하나까지 조정하며, 고객의 시야와 착용감을 끝까지 완성해간다.

기억에 남는 ‘회복의 순간’

그의 노트에는 이런 사례가 적혀 있다. 여러 병·의원과 매장을 거쳤지만 시야가 흐릿해 일상에 어려움을 겪던 고객이, 고도근시·난시의 잔여 굴절과 착용 습관을 함께 조정한 뒤 실사용 시야가 뚜렷해졌다고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이야기. 허 안경사는 이를 “수치가 아닌 생활 시야를 회복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일터이자 사역지, 교회와 이어지는 마음

허남기 안경사는 매장을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곳”이라 여긴다. 작은 선택 하나도 기도로 여쭙고, 상담 자리에서는 먼저 경청과 존중을 지킨다. 그는 신앙 안에서 “하루 일과가 신앙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찾아오는 고객을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으로 대할 때, 일은 돌봄이 되고 매장은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된다.

조언 한 마디

허 안경사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특화 매장을 고르고, 검사와 피팅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받는 것이 만족도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 예약제 운영 여부, 검안 설명의 투명성, 사후 피팅과 A/S 체계도 함께 살펴보길 권한다.

“안경은 하루를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숫자보다 삶을, 판매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면 뒤에 기도, 현장 위에 신뢰

서우건설디자인 박정신 대표

유아교육 전공자에서

인테리어·실내건축 법인 대표로.

박정신 대표는 “사업은 생존의 수단을 넘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확신으로 현장을 세워 왔다.

결과보다 과정을 단단히 놓는 선택, 그리고 매일의 기도가 서우건설·서우디자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어린이 기관에서 일하던 그는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인테리어 업을 접했다. 낯선 업종, 대표라는 자리 앞에서 두려움이 컸지만, 마음에 남은 말씀은 분명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리라.” 그 한마디에 기대어 문을 열었다. 돌아보면 즉각적인 이익은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 옳았다고 확인되는 결정들이 이어졌다. “기초부터 다지게 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가 먼저 배워야 할 것, 놓치기 쉬운 것을 하나님이 앞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우건설·서우디자인의 직원들은 의견 충돌이 생겨도 결정은 오래 끌지 않는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한 방향을 보도록 끝까지 대화하며 길을 걸어간다.

좋은 기술 위에 좋은 태도를 쌓으며

서우건설·서우디자인은 실내건축공사업 전문면허 법인으로, 설계·시공·A/S까지 한 흐름으로 책임진다. 박 대표는 말한다. “우리 경쟁력은 실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를 이끄신다’는 고백으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더 오래 책임지려 합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할렐루야’로 인사를 건네는 거래처도 생겼다. 신앙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고객은 태도를 통해 회사를 알아본다.



기독교실업인회(CBMC)를 통한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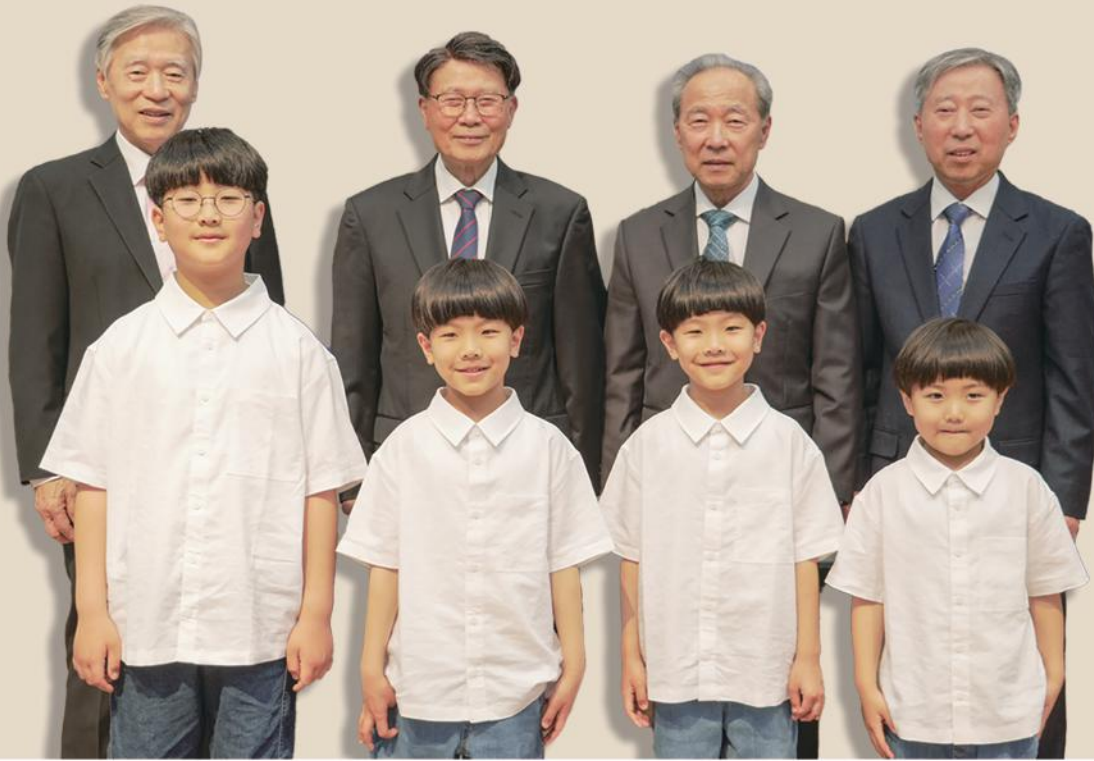
사업을 ‘사역’으로 세우고 싶어 찾던 중, 기독교실업인회(CBMC)를 만났다.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조찬기도회, 말씀 노트를 나누며 한 주를 시작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기도 중에 받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분투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요.”

소양교회를 통해 바뀐 ‘관점’

박 대표에게 사업장은 예배의 연장선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과정은 우리가 성실하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소양교회 예배와 기도, 공동체의 격려가 그의 마음을 붙든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많이 나누고, 그리되지 못하더라도 하루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는 믿음이 일의 기준을 바꿨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세요. 밀쳐야 본전이 아니라, 제 삶에선 ‘가장 큰 이익’이었습니다. 짐을 고치든 삶을 세우든, 기초를 든든히 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일’입니다.”

장로4형제 장씨4형제



뒷줄 왼쪽부터
김용배 원로장로, 김용대 원로장로,
김용철 원로장로, 김용일 장로

앞줄 왼쪽부터
장훈민, 장정음, 장한글, 장지음

71년전 소양교회 개척에 동참했던 故최종희 권사님의 아들 4형제는
모두 소양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충성봉사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시절을 지나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쓰임받으며
막내 김용일 장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로장로가 되었습니다.

성결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은 자랑스런 **소양교회의 역사**입니다.

어머니 나사라 집사와 훈민이네 4형제는 춘천의 자랑입니다.
언론인 아버지의 작명센스까지 더해진 가족의 모습은 특별합니다.
유아교회때부터 모범적인 교회생활로 성장중인 사형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된 **소양교회의 미래**입니다.





작품에는 웃을, 가문에는 믿음을

40년 역사의 예원표구사
김용철 사장

한 점의 글씨와 그림이
오래 숨 쉬도록 ‘웃’을 입혀왔다.
그의 손끝은 작품을 보존하고 돋보이게 하고,
그의 기도는 집안을 신앙으로 세워간다.

표구 기술자의 길

화학을 전공해 포항제철 연구소에 있던 그는 부모 봉양을 위해 춘천으로 돌아와 1985년 표구의 길을 택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는 작품을 돋보이게 하고 오래 보존·복원하는 표구의 본령을 ‘주께 하듯’ 한 땀 한 장 쌓아 올렸다.

작품의 성격과 의뢰인의 취향을 읽어 배접·건조·액자 제작까지 손수 진행하는데, 한 작품에만도 수십 차례 공정을 거쳐 완성까지 통상 일주일 남짓이 걸린다.

그는 오래된 교지·유품의 복원부터 현대작가의 전시 준비까지 맡아왔고,故이외수 선생의 화천 전시관 전 작업을 담당해서 진행하기도 했다.

IMF와 경기 침체의 굶뎠이 같은 시절엔 “성실과 신뢰”로 단골을 쌓아 버텼고, 말로 신앙을 내세우기보다 태도와 품질로 기독교인의 정직함을 드러내려 애써 왔다.



어머니에서 손주까지, 4대째 이어진 믿음의 유산



故 최중희 권사

소양교회 창립 멤버였고, 365일 하루도 새벽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어머니故최중희 권사의 기도는 아들 네 형제를 모두 장로로 세웠다. 김용배·김용대·김용철 원로 장로, 김용일 사무장로까지. 형제 넷이 한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풍경은 지역 교회와 교단 안에서도 드문 장면이다.

교회 맞은편 집에 살던 어린 시절, 미군부대에서 지원받은 옥수수 죽을 성도들과 나누어먹고, 성탄 연극과 새벽송,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던 예배당 등 그는 소양교회와 함께했던 여러 추억을 회상했다.

소양교회와 나란히 71년의 시간을 걸어온 그의 가정은 이제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믿음의 여정을 잇고 있다. 주일이면 모든 가족이 교회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손주들이 교회학교에서 배운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여 하나씩 보여줄 때,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그에게 큰 기쁨이 된다.

작품을 살리는 기술과 가문을 세운 기도가 그의 일과 삶을 한 줄로 잇는다. 어머니를 통해 시작된 신앙의 길, 이제는 어머니 품 같은 교회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이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입으실 옷처럼

모아그린 세탁소 고순옥 사장

약사동 골목 끝, 작은 다림판 위에 김이 오른다.
고순옥 사장은 매일 같은 마음으로 옷을 마주한다.
“맡겨진 모든 옷을 예수님이 입으실 옷처럼.”
그 단순한 원칙이 세탁소의 품질이 되었고, 신뢰가 되었다.

일의 시작과 손끝의 철학

열네 살에 양장점·양복점에서 재단과 봉제를 배우며 손기술을 쌓았다. 결혼 후에는 집에서 교복 바지 하청을 받아 1990년대 내내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만, 기성복 교복이 대세가 되자 길을 틀었다. 2003년 효자초등학교 앞에서 첫 세탁소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약사동 ‘모아그린 세탁소’를 운영한다.

10년의 터널, 그리고 응답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집안 사정으로 월 16차례, 500~600만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했다. 남편의 건강 문제로 생계는 세탁소 수입뿐, 세금과 각종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밤 12시까지 다림질을 멈추지 않던 날들, 그녀는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2019년 말, 극적으로 모든 빚이 정리됐다. 그와 동시에 더 좋은 장비와 환경의 점포로 이전할 길도 열렸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고순옥 사장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다.

소양교회와 신앙의 호흡

세탁은 기술이지만, 태도는 예배에서 나온다. 주중엔 다림판 앞에서, 주일엔 소양교회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다시 고른다. 공동체의 기도와 위로, 김선일 목사의 말씀은 긴 겨울 같던 시간을 버티게 한 힘이였다. 그래서 손님을 대할 때도 먼저 옷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한 분 한 분을 ‘작은 예수님’처럼 대한다.

그래서 어떤 옷이 와도 ‘예수님께 맡겨진 옷’이라 여기고 품질을 지킨다. 태도는 늘 기쁘게. 억지로 하지 않는다. 고객이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돌아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고순옥 사장의 정성스런 마음을 아는듯, 손님들은 고마움의 표현으로 작은 음료나 과일을 건넨다. 가게 안팎으로 정성에 대한 신뢰가 쌓여간다.

“오늘도 깨끗이, 정직히, 기쁘게.”

그녀의 소망은 화려하지 않다.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할 것. 찾아주는 모든 손님들에게 ‘새 옷을 입은 듯한 기분’을 선물할 것.

이제 그에게 세탁은 생계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깨끗이, 정직히, 기쁘게.”

그녀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꽃과 말씀 한 장의 카드

수채화 작가
전명옥 작가

풍경과 꽃을 그리던 손은
이제 작은 카드 위에
말씀과 위로를 적어 넣는다.
한 장의 카드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건넨다.



물감으로 다시 열린 길

그림은 대학 시절 과제로 처음 만났다. 안동교대 재학 때 매주 풍경화를 제출해야 했던 시간이 손에 익을 무렵, 삶은 다른 길로 흘렀다. 그리고 2019년 춘천으로 이주한 뒤, 2020년 10월 다시 붓을 잡았다. 신앙의 선배를 통해 만난 스승과 목요일 수채화 모임이 계기가 되었다. 봄엔 야외에서 꽃을, 계절이 바뀌면 교실에서 정물과 풍경을 그렸다. “꽃을 그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싶고, 그 시간 자체가 감사해요.”



그림이 카드가 될 때

큰 캔버스는 보관도 어렵고 나눔의 폭도 좁다. 전명옥 작가는 방향을 바꿨다. 말씀 카드·감사 카드 같은 소형 작품에 몰입해, 일상에서 건넬 수 있는 관계의 예술을 만들기 시작했다.

전달 방식도 단순하다. 상황을 떠올리며 그림을 고르고,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한 뒤, 손글씨로 메시지를 적어 보낸다. 때로는 예수님의 품을 형상화한 그림과 함께 위로의 편지를 더한다. 수신자는 믿는 이든, 아직 믿지 않는 이든 상관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림은 그 사랑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소양교회에서 이어지는 섬김

그의 카드가 가장 자주 닿는 곳은 소양교회 안팎의 이웃들이다. 임직식 축하, 병상 문안, 예기치 않은 사고의 소식을 들려오면, 그는 작은 카드와 함께 짧은 편지를 전한다.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조용히 안부만 묻는다. 전도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전명옥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관계가 먼저예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대화하고, 때가 되면 카드를 건네보세요. 삶이 보이면 복음의 말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앞으로의 비전

전명옥 작가는 말씀 카드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소규모 전시와 나눔 바자 등 관계형 전시를 꿈꾼다. 목표는 단순하다.

“한 장의 카드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것.”

그는 오늘도 물을 밀어 올려 종이에 스미게 한다. 그 사이로, 위로와 복음이 잔잔히 번져 간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순옥 씨

불교 가정에서 자란 소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큰언니의 전도의 첫 열매였다. 스무살 어느 저녁 무렵 교회 예배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후 삶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매번 절망의 순간을 소망으로 바꾸셨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스물두 살에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심한 환청과 정신적 고통으로 무너져 갔다.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속삭임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교회 부흥회 마지막 날, 강사 목사의 안수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졌고, 마음속에서 ‘네 병은 나았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새 하늘을 여는 듯한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불교를 믿던 어머니마저 “네 병이 낫는 걸 보니 예수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셨다.

성격도, 삶도 바꾸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이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되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하던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달라졌다. 주눅 들어 있던 삶이 자유로워지고, 성격이 변화되자 대학교 시절에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인생의 고비들, 그러나 함께하신 하나님

그의 인생에는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다. 교직 초년병 시절 찾아온 질병, 임신중독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출산의 고통, 그리고 2019년 유방암 진단까지.

혈압 200에 온몸이 부어오르고, 아이를 포기하라는 권고 속에서도 그는 기도로 아이와 자신의 생명을 붙잡았다. 결국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무사히 자랐고, 본인도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

또한 암 투병의 고통도 하나님은 견디고 이겨낼 힘을 주셨다.

“절망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양교회와 새로운 은혜

남편의 은퇴 후 춘천으로 내려온 그는 여러 교회를 찾아 다녔다. 어떤 교회가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역동적인 교회의 분위기와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마음을 정하여 지금의 소양교회에 정착했다.

“소양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찬양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느낍니다.”

또한 소양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고백한다. 71년의 역사 속에 4대째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고, 인구 감소 시대에도 소망의 불씨를 지켜가는 모습에서 그는 희망을 본다.

“저에게 소양교회는 모든 세대가 자라가는 꿈의 교회입니다.”

나를 일으켜준 엄마 품 같은 교회

서정원 씨

교회 종소리와 찬송 소리가 좋아
스스로 교회 문을 열었던 5학년 소녀.
그 소녀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
그는 청소년 시절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신앙의 시작과 변화

서정원 씨는 누구의 전도도 없이, 그저 교회의 종소리와 찬송 소리가 좋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벽기도에도 참여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고, 결혼 전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만큼 열심이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며

2022년 3월,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023년에는 어머니마저 저혈당 쇼크로 떠나보냈다. 삶을 지탱하던 두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때, 소양교회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었고, 소양교회를 통해 받은 따뜻한 마음과 시누이의 권면에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

교회에서 만난 정원씨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양교회 성도들의 위로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그 날의 경험을 안고, 그녀는 어려움에 놓인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소양교회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어려움을 맡기면 평안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녀에게 소양교회는 “엄마 품”이다.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성도들은 친정 식구처럼 따뜻한 관계로 그녀의 삶을 붙들고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낸 그녀에게 소양교회는 엄마 품처럼 안식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정 같은 교회다.

찬양으로 바뀐 은혜의 고백

이제 그녀는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를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나누는, ‘죽을 때 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다. 매일 시간이 나면 교회에 찾아와 피아노 연주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작지만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은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소양교회의 ‘시온 성가대’와 ‘그리심 통기타 찬양단’에서 매일 찬양하며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다.



소양교회에서 꿈꾸며 자라가요

후평초등학교 5학년 경예지 어린이

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유도, 태권도, 배드민턴, 피구, 육상 등 뭐든지 가리지 않고 해요. 체육 시간이면 벌써부터 심장이 콩닥거려요. 배드민턴은 빠르게 움직이며 스매시를 날릴 때가 가장 재밌고, 피구는 친구들과 작전 짜서 이길 때 짜릿해요. 유도와 태권도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좋아요. 운동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기, 규칙 지키기, 친구 먼저 생각하기”를 배웠고, 이게 학교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소양교회에 다녔어요.

할아버지는 경승현 집사님, 할머니는 김교상 권사님이세요. 제 이름 ‘예지’도 소양교회 원로목사님이셨던 故 이원호 목사님께서 지어 주셨어요. 한동안 부모님을 따라 다른 교회에 다닌 적도 있지만, 요즘은 다시 소양교회에 나가요. 주은미 집사님 가정과 우리 가족이 친하고, 제가 임서윤 언니랑도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덕분에 6학년 언니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린이교회 예배는 늘 기대돼요.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고, 말씀 들을 때는 중요한 문장을 공책에 적어 뒀어요. 소그룹 시간에는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성가대 언니들이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더 자라면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난여름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공모전에 제가 생각하는 소양교회를 글로 써서 냈어요. “소양교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썼는데, 당선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소양교회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 정말로 기도해 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며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는 거구나”라고 배웠어요.



저는 빵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커서 제과제빵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고소한 식빵, 바삭한 크루아상, 달콤한 쿠키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주일이면 교회 어르신들께 따뜻한 빵을 나눠 드리고, 이름도 “감사 식빵”, “기쁨 쿠키”처럼 지어 보고 싶어요. 맛있는 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기도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또 제 꿈을 준비할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좋아하는 운동을 즐겁게 하면서도 친구들을 더 잘 돕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한 땀흘림

소양교회 배드민턴 동호회
이영·황보라 부부



2022년부터 교회 배드민턴 동아리에 참여한 황보라·이영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체육관으로 향한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은 근육통 때문에 자주 참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게 됐다. 지금은 매 주일 체육관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역할까지 맡으며 동아리의 든든한 구성원이 되었다.



더 잘 치고 싶어서, 더 즐겁게

“처음에는 어른들에게 점수를 크게 지는 게 속상했어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부는 주일 저녁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평일에도 따로 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연습을 이어갔다.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도 가입해 코치에게 지도받고, 다른 회원들과 게임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갔다.

함께여서 더 즐거운 자리

이 모임의 가장 큰 매력은 교회 안에서 쉽게 접점이 없던 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다. 땀을 흘리며 경기를 하다 보면 평소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성가대에 속하지 않았던 부부가 성가대원 권사·집사님들과도 가까워지고, 교회에서 얼굴만 스치던 이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게 되었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함께 땀을 이어가며 땀을 흘릴 때, 더욱 가까워진 서로를 발견하며 미소짓게 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서로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또래 아이들끼리 모여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덕분에 부모는 마음 편히 경기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되고, 서로가 또 다른 가족이 되어간다.

소양교회 배드민턴 동아리 모임은 매 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봉의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황보라 씨와 이영 씨는 자신들이 경험한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경험을 더 많은 이들이하기를 바란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모여 땀 흘리고, 웃고, 대화하며 신앙 안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시간. 오늘도 그 시간을 꿈꾸며 두 사람은 체육관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린다.





목사님은 방송중 CBS RADIO 93.7Mhz

소양교회 담임목사 김선일

매주 토요일 낮 12시가 되면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다.
바로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김선일 목사님의 목소리다.

매주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1시간 30분 동안 간증과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벌써 4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200회 방송을 지나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파나 교단을 초월하여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담는 소중한 시간이다.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도 방송을 진행하며 오히려
도전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김선일 목사님은
앞으로도 교회 섬김과 방송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10월,
춘천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된 김선일 목사님은
더 큰 책임감으로 지역 교회의 연합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이끌어
다음 세대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형성된 폭넓은 네트워크만큼이나
한 단계 성장하는 소양교회와 춘천의 성시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김선일 목사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M.Div)
풀러신학대학 목회학 박사(D.Min)
현 소양성결교회 담임목사
서울신학대학 외래교수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장
강원CBS 반가운오늘 진행



예배안내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본당 (본관 2층,3층)
	2부	오전	9:00	본당 (본관 2층,3층)
	3부	오전	11:00	본당 (본관 2층,3층)
	4부	오후	2:00	본당 (본관 2층,3층)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본관 2층,3층)
금요성령집회	오후	9:00	여리고기도실 (본관 지하1층)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00	여리고기도실 (본관 지하1층)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유아교회	주일	오전	11:00	유아교회실 (선교관 1층)
어린이교회	주일	오전	11:00	어린이교회실 (본관 지하1층)
청소년교회	주일	오전	11:00	청소년교회실 (선교관 3층)
청년교회	토요일	오후	4:00	청년교회실 (선교관 3층)

소양:ON

Copyright

발행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발행인 김선일

총괄 김선일

편집 김태환

취재 김태환 배은찬 윤요한
김은지 박현진 박종한 안서현
이수이 양지연 김은호 신하진

디자인 김태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43번길 19

전화 033-253-2004



Homepage

soyang.onmam.com/



Youtube

youtube.com/소양성결교회c



Instagram

소양교회 - @soyangchurch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